

광주를 둘러싼 100가지 이야기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 자리한 풍영정. 관직에서 물러난 김언거가 1560년 지었으며 한석봉이 쓴 '제일호산' 현판이 유명하다.



지역문화교류재단 '광주 역사문화 자원 100'(상·하) 출간

뽕뽕다리, 경양 방죽, 오지호, 5·18...

100가지 자원에 스토리텔링 입혀

역사문화·건축 지도도 함께 발간

책을 받아들이고 100개의 목차를 훑어봤다. 가장 먼저 읽은 건 '뽕뽕다리'. 바닥에 송송 구멍이 뚫린 철판으로 만들어진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재미있으면서도 조금은 무서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던 터라 '뽕뽕다리'에 얽힌 이야기들이 궁금했다. '옛 시절 광주천이 바다와 연결되는 뱃길이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부터 학동에서 방립 2동으로 건너는 유일한 다리였던 이 다리가 1986년 광주천을 횡단하는 17번째 철근 콘크리트 교량 방립교가 들어설 때까지 운영했다는 것, 양림동 한희원미술관 문이 '뽕뽕다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내친 김에 말바우 시장, 송정 떡갈비 거리, 제중병원, 농장다리, 시인 김현승에 대한 이야기도 읽는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책자는 지역협력교류재단이 최근 발간한 '광주 역사문화 자원 100'(상·하)으로 광주가 품고 있는 100가지 자원에 스토리텔링을 입혔다.

광주시의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 일환으로 제작된 책자에 등장하는 '100가지 이야기'는 앞으로 '광주'라는 도시에 '역사·문화적 상상력'을 덧입혀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창작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도시'의 첫 걸음인 셈이다.

책에 담긴 이야기는 자연 지리, 문화유산, 생활민속, 인물 등 다채롭다. 상권은 무등산, 광주호, 금당산 등의 이야기를 담은 1장 '묵묵히 버틴 산천과 초목'으로 시작한다. 이어 '애환이 깃든 다리와 고개', '삶이 녹아든 도로와 거리', '활력 가득한 시장과 공원' 등을 통해 농장다리, 돌고개, 구시청 사거리, 오리탕 거리, 송정역 시장, 구동체육관, 광주극장, 이장우 가옥 등 50곳의 이야기를 담았다.

하권에는 경양방죽과 태봉산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민중이 이어온 전설과 민속',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 고경명 등을 다룬 '울곧이 지켜온 광주의 정신' 등이 담겼다. 허백련·박용태·임방울·오지호·김남주·김현승 광주의 문화예술인들과 신창동 유적지, 광주향교, 월봉서원 등 유물과 유적도 소개한다.

광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5·18'은 따로 한 장을 할애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과 박관현, 오월길, 국립 5·18 민주 묘지 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재단은 책 발간을 위해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위주영, 김원중씨로 이루어진 연구팀과 전득염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모두 1000개의 문화자원을 선정,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김인정·김진희·신나라·윤지수·정연승씨 등 작가 6명이 필진으로 참여, 스토리텔링 작업을 한 후 결과물을 엮었다.

재단은 광주 문화유산을 담은 지도 2종도 함께 제작했다. 하나는 1872년 지방지도인 '전라좌도 광주 지도'를 기본으로 광주읍성과 경양역 등 지금은 사라진 광주 명소와 무등산, 포충사 등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적을 담은 '1872년 광주역사문화지도'다.

'광주건축 문화유산 지도'도 함께 나왔다. 이장우 가옥, 최승호 가옥 등 전통 가옥 8곳과 조선대 본관, 전남도청 회의실, 수창초 본관, 수피아여학교 윈스브로우를 등 근대 건축 18곳 등 모두 27곳을 다루고 있다.

사업은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홈페이지를 제작, 기본 자원들을 자료화 해 '광주 이야기 플랫폼' 역할을 하고 대표 스토리는 웹툰 등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책(1000부)은 광주교육청을 통해 초중고에 우선 배포되며 국공립 도서관과 주민센터, 문화기관 등에 비치된다. 또 재단 홈페이지(www.rcef.or.kr) 일반 자료실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980년대까지 학동과 방림동을 이어주던 뽕뽕다리.

호남 현대미술의 현주소

광주시립·전북도립미술관 교류전
10~26일...30~40대 작가 16명

현재는 행정구역상 광주·전남·전북으로 나뉘져 있지만 호남은 원래 하나였다. 공통 문화권을 형성하면서도 각 지역별로 독자적인 예술을 선보여 왔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북도립미술관이 양지역 미술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10일부터 3월26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호남의 현역작가들'을 주제로 광주·전북 교류전을 연다.

양 미술관은 지난해 12월 공동협력사업, 소장품 상호교류·기획전시 공동주최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열리는 이번 교류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광주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는 각 미술관에서 추천한 30~40대 광주·전남, 전북 지역 작가가 16명이 참여해 10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참여작가는 김명우·박세희·박정용·송영학·설박·이인성·이조흠·이정기(이상 광주·전남), 김성민·김영봉·박성수·서완호·이가림·이주리·조현·홍남기(이상 전북)씨다.

한국화, 서양화, 설치, 조각, 미디어 작품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호남 현대미술의 현재와 독창성을 가능케할 수 있는 자리다.

'2016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에 참여한 설박 작가는 길이 4m 롤라주 수목작품 '어떤 풍경'을 전시한다. 비엔날레 리부프로그래메에 출품했던 김명우 작가는 검은 모래로 형상화한 QR



이가림 작 'Face no.66'

코드와 가짜 한국어강좌 영상으로 구성된 'Trace of Sand'를 선보인다. 이정기 작가가 제작한 설치작품 '표리부동'은 사과 조형물 내부에 깨진 거울을 붙여 겉다르고 속다른 동시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전북 작가들은 인물화가 주로 눈에 띈다.

서완호 작가는 얼굴에 페인트칠을 한 젊은 남성 사진을 통해 우울한 현대인들의 초상을 표현했고 이가림 작가는 추상적으로 그린 배에로 그림 'Face no.66'을 선보인다. 조현 작가의 '상대적 시간'은 캔버스를 8등분해 각 칸별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담아냈다. 문의 062-613-71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조흠 작 'Focus-square'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로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광남면 18)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